

뉴스홈 | 최신기사

-올림픽<테니스> 나달, 랭킹 1위 축하 금메달

송고시간 | 2008-08-17 20:57



-올림픽<테니스> 나달, 랭킹 1위 축하 금메달

(베이징=연합뉴스) 특별취재단 = '원손 천재' 라파엘 나달(2위.스페인)이 2008 베이징올림픽 테니스 남자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.

나달은 17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테니스센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페르난도 곤살레스(15위.칠레)를 3-0(6-3 7-6 6-3)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.



18일 발표되는 남자프로테니스(ATP) 랭킹에서 4년 넘게 계속된 로저 페더러(스위스)의 독주를 저지하게 되는 나달은 1위 등극을 자축하는 금메달을 따낸 셈이다.

2세트 게임스코어 5-6으로 뒤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15-40까지 뒤져 위기를 맞았던 나달은 당황하지 않고 듀스까지 끌고 가 게임을 따냈고 타이브레이크에서는 7-2로 손쉽게 이겨 곤살레스의 기를 꺾어냈다.

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단복식을 석권했던 칠레는 정상을 지키지 못했다.

여자단식에서는 모든 메달을 러시아가 휩쓸었다. 러시아 선수들끼리 벌인 결승에서는 엘레나 데멘티예바(7위)가 디나라 사피나(6위)에 2-1(3-6 7-5 6-3) 역전승을 거뒀고 3-4위전에서는 베라 즈보나레바(11위)가 리나(42위.중국)를 2-0(6-0 7-5)으로 완파하고 동메달을 차지했다.

여자복식에서는 비너스-세리나 윌리엄스(미국) 자매가 버지니아 루아노 파스쿠알-애너벨 메디나 게리거스(스페인) 조를 2-0(6-2 6-0)으로 가볍게 따돌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정상을 탈환했다.

이날로 끝난 테니스에서는 스페인, 스위스, 러시아, 미국이 금메달 1개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.

emailid@yna.co.kr

관련기사

- 올림픽<테니스> 데멘티예바·사피나, 결승 맞대결
- <올림픽> 테니스 조코비치 "관중석 매너 문제 있다"
- <올림픽> 후진타오 '올림픽 절차'..대중에 친근감 과시
- 올림픽<테니스> 페더러, 남자복식에서 금메달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08/17 20:57 송고



핫뉴스 →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"

다섯식구 평균키 203cm...美 가족 '최장산' 기네스북 등재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마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범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-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[영상] 입·발 묶인 체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나

▶ 02:22

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장관 "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- 영상

▶ 02:22

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

- 뉴스



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...다음주부터 인원
·시간 제한없다

尹당선인 "물가상승 장기화 대비...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소화"

안철수 "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 있었지만...임기 끝까지 최선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尹측 "정호영 '아빠 찬스' 논란, 국회 검증의 시간 지켜볼 생각"



댓글 많은 뉴스

- 1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

160
- 2

'유퀴즈'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"(종합)

67
- 3

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 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?

56
- 4

문대통령, 손석화와 대담...홍 "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"

41
- 5

[팩트체크]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'계곡살인'을 검찰이 혐의 밝혀냈다?

29

뭐하고 놀까? #홍 →

유튜브 채널



SNS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

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

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

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스/사설 이시각 헤드라인

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
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

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

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 클럽 #홍

계약사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계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 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
Yonhapnews